

직원 320명에 연매출 200억... 광주 외식업계 3세대 대표주자

성공 신화를 쓴다
내가 최고

황의남 민속촌·무진주 대표



장기불황의 그늘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빛을 내는 기업과 인물은 있다. 성공과 대박 뒤에는 법인들이 알 수 없는 마인드와 노후자가 있다. 색다른 사고방식과 철학, 기술로 각분야의 최고가 된 이들을 만나 그들의 성공 비법과 경영 철학, 삶의 방식을 들여본다.

끊임없는 음식 연구...신념과 원칙 지켜온 20년 "직원 성공이 회사 성공"...15년 근무자 연봉 1억

돼지양념갈비가 주메뉴인 '민속촌'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봤을 음식점이다. 지난 1993년 동구 옛 전남도청 옆에 문을 연 민속촌은 연매출 1억5000만 원에 불과한 '작은 고깃집'이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민속촌 총점과 상무점, 수완점, 보쌈전문점 '무진주', 보쌈 전문매달점 등 5개 업소에서 연매출 200억원을 올리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했다. 직원규모만 320명에 달한다. 광주지역 한식당 가운데 최고 음식브랜드로 평가받는다.

광주지역 외식업계는 가족식당 시대를 연 '수공갈비'를 성공 1세대, 메뉴를 확장시킨 '동산회관(양념삼겹)', '유생촌(돈까스)'을 성공 2세대, '민속촌'을 성공 3세대로 꼽는다.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가 주축한 외식업계에서 황의남(48) ㈜민속촌·무진주 대표는 가장 큰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 창업 이후 20년 오직 한 우물만 파온 그

에게 '식당업은 천직'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남다른 경영철학으로 광주지역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라섰다. 황 대표는 20년째 '신념과 원칙' 다섯 가지를 지켜오고 있다. ▲안심 딱거리 제공 ▲정량 준수 ▲정확한 원산지 표기 ▲착한 가격 ▲이웃을 위한 기부가 그것. 가장 기본적인 식당의 원칙이면서도 누구나 지켜내기 힘든 원칙이다. 아예 식당 내부에 표어로 붙여놓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황 대표 의지의 표현이다.

"민속촌을 개업하던 때만 해도 '불결해 보이는 종업원의 앞치마', '미끄러운 바닥', '약간의 불친절함'이 고깃집을 표현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식당관리부터 다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양식 음식점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곧바로 호응으로 화답하더라고요."

민속촌을 방문한 고객은 직원을 부를 틈이 없다. 황 대표가 도입한 '비포(Before) 서비스'는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손님 사이를 오가며 채소나 반찬이 부족한지를 보고 먼저 가져온다. '손님이 달라기 전에 먼저 드러라' 민속촌만의 고객 서비스다. 직원 명찰엔 이름과 함께 '대표' 직함이 함께 붙어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식당 주인의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하라는 뜻이 담겼다.

맛과 서비스를 위해 황 대표가 노력한 시간도 만만치 않다. 전국 지방공공의 갈비와 냉면 전문점을 다 찾아가 직접 맛을 보고 조리법을 분석했다.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2004년부터 외식산업경영학을 공부해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업종 전환이나 동일한 메뉴의 식당 증가 등 외종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는 식당'을 어떻게 유지할까 밤마다 고민했죠. '직원에 대한 믿음'이 해답이었습니다. 직원의 행복과 성공이 회사의 행복과 성공 아닐까요?"

직원들과 부가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황 대표의 목표였다. 고객 만족이 첫 번째 가치라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황 대표가 해야 할 일이었다.

외식업계에서 민속촌의 직원 대우는 정평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전 직원의 월

우리는 연간 150만 고객의 건강과 즐거움을 지켜주는 행복도우미~
의사, 변호사, 판·검사보다 조리사가 더 대접받는 세상이 오고있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는 그런저 조리사는 벤츠라는 시대가 오고있다.

민속촌 상무점 주방 한 가운데 붙은 '의사, 변호사, 판·검사보다 조리사가 더 대접받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표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속촌의 대표메뉴 양념돼지갈비는 20년간 광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음식이다.

급을 30만원이나 인상했다. 창업 당시부터 함께 하며 1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은 연봉 1억원이 넘는다. 부가가치를 직원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수입차 '벤츠'를 보너스로 받은 직원도 5명이다. 스톡옵션처럼 직원들의 참여경영제도도 도입했는데, 1000만원을 투자한 직원이 현재 연 600만원의 배당을 가져갈 정도다. '민속촌' 브랜드의 성장과 200억원의

매출은 다른 업소와 비교하기 힘든 직원 처우와 황 대표의 경영철학이 밑바탕이 된 것이다. 황 대표는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성공을 위한 조언도 남겼다. "좋은 인재가 일해야 좋은 식당이 됩니다. 고객에게 정직하게 다가야 하고, 결실은 직원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품질과 서비스에 연구를 아끼지 마십시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61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변화를 선도하는 스마트대학
끊임없는 지적호기심 탐구와 꿈을 이룰수 있는 대학
창조적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에서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www.nambu.ac.kr

우리의 열정과 도전으로 세상의 중심을 끌어당기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1로 76번지(월계동864-1)
대표전화 062-970-0001 입학상담 970-0114-5

총장 조 성 수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
CHUNNAM TECHNO COLLEGE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13
대표전화 061-360-5000 · 입학상담 1588-5051

www.cst.ac.kr

역사와 전통의 50년! 혁신과 도약의 100년!!

조선이공대학교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1(서석동 290번지)
대표전화 062-230-8114 · 입학상담 236-2020

총장 김 왕 복

3월 광주·전남 무역수지 사상최대 흑자

8억 2100만달러...수출 전년 동기비 11%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의 무역수지가 수출증가로 8억 2100만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11% 증가한 48억 300만달러, 수입이 7% 감소한 39억 8200만달러로 8억 21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3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대비 8% 증가한 143억 3000만달러, 수입이 전년대비 5% 하락한 124억 4200만달러로 전년대비 무역 833%가 신장한 18억 9000만달러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13억 8200만달러, 수입은 1% 증가한 4억 400만달러로 무역수지 9억 7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96%,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이 34% 증가한 데 힘입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95%), EU(47%), 중국(35%), 중동(15%) 지역 수출이 증가했으며 일본(19%), 중남미(18%), 미국(1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광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가 96% 증가한 3억 7700만달러의 실적

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계류와 정밀기기(34%), 철강제품(9%)의 수출이 증가했고 가죽·고무 및 신발류(18%)는 감소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9% 증가한 34억 2100만달러, 수입은 8% 감소한 35억 7800만달러로 무역수지 1억 5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42%), 동남아(25%), 중국(10%)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미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은 감소했다.

전남 지역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6%), 화공품(10%), 선박 등 수송장비(7%)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기계류와 정밀기기(19%)의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은행 고객센터 3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능률협회 품질지수 인증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광주은행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발표한 '2013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인증을 공식 취득해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3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인증된 광주은행은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은행 콜센터는 여러가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

는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텔레뱅킹 도청감청 방지 시스템'과 '인터넷 원격지원 서비스' '월말 결제일 전화량 폭주에 따른 가변형 ARS시스템 도입' '휴일에도 필드와 동일한 업무상담 서비스' 등이 이번 선정과정에서 높이 평가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동구 지산유원지 무등산 리프트 안전정비 마치고 내일 운행 재개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무등산 리프트가 안전정비를 마치고 운영을 재개한다.

18일 리프트 운영사 ㈜무등파크리프트는 지난 8일부터 12일간 구동 기어 교체와 활차, 와이어 등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등파크리프트는 리프트카의 안정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동부 기어·디스크를 전면교체했으며 감속기 보수와 라이닝 조정, 지지탑 보완·도색 작업을 마친 상태다.

박재완 무등파크호텔 이사는 "무등산 국립공원승격에 맞춰 노후 설비를 대폭 교체하는 등 안전성 향상을 최선 다했다"며 "정밀 안전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재가동에 들어간 만큼 탐방객들의 예정어린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산파크호텔에서 15분에 걸쳐 올라가는 무등산 리프트는 국립공원 무등산의 웅장한 자태가 장엄하게 펼쳐지며, 광주 시가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전국 관광객이 즐겨 이용하는 무등산 유일의 리프트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동통신사 가입비 올해부터 단계적 폐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여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동사들은 그만큼 수익 감소를 피할 수 없어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연명뉴스

코스피지수 1900.06 (-23.78)	코스닥지수 551.10 (-7.44)	금리(국고채 3년) 2.59% (-0.04)	원 달러 환율 1124.00원 (+5.50)
---------------------------	-------------------------	-----------------------------	-----------------------------